

김성제 의왕시장

“명품도시 의왕 건설”

의왕시 신년계획

자연 친화적인 도시 개발
노후주택 정주환경 개선
내손 중·고 통합학교 설립

김성제 의왕시장은 2024년 시무식에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도시 의왕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김 시장은 갑진년을 “의왕시가 수도권 중심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수 많은 도전과 난관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해낼 수 있다”고 다짐했다. 의왕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비상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김성제 의왕시장의 신년 시정계획을 살펴본다.

-자연 친화적인 도시 개발 추진

먼저 의왕시는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5개의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고천행복타운과 초평신호희망타운이 올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월안과 청계2 공공주택지구도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LH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계획대로 추진한다.

의왕시는 이들 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께 인구 25만명의 수도권 중심도시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8개의 재개발사업과 2개의 재건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내손2동 일대 노후 주택의 정주환경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도시 조성

의왕시는 경력이 단절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분들에게 취업 기회와 창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JOB 페스티벌 개최와 함께 신규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국



도개비시장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도심 관광형 시장으로 발전시키고, 청계맑은숲 먹거리마을 특화거리 조성 및 갈미상가 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

포일동에는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해 의료·바이오·IT 관련 기업들을 유치해 과학과 판교를 잇는 첨단 산업 벨트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왕산업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교통 편의 개선

의왕시는 부족한 주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성 중인 고천문화공원 공영주차장과 오전동 공영주차장은 2025년 상반기까지 조성한다.

의왕시는 출·퇴근시 상습 정체 구간인 백운로 확장을 위해 지난해 LH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또한 청계IC 수원방향 진입램프를 신설하고 의일로2 도로 확장 및 오전~청계간 도로 개설로 교통량을 분산해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문화도시 도약 의왕시는 2025년 3월 개교 예정인 내손 중·고 통합영역 미래학교가 차질 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한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는 다음달 경기도 자체투자사업을 거쳐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손동에 설립 예정인 '의왕미래교육센터'는 4차산업 관련 기술 체험 등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미래교육의 핵심거점공간으로 만들어 간다. 특히 지난해 서명운동을 통해 많은 시민들의 염원이 분출된 독립적인 의왕교육지원청 설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문화·체육·복지 도시 조성

의왕시는 시민들을 위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될 문화예술회관은 이달 중에 착공해 2025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철도공사 인재개발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시민들의 건강 힐링공간인 맨발걷기 길을 각 동별로 조성한다. 정용포 기자

GUNPO 하은호 군포시장

“스마트도시로 도약”

군포시 신년계획

쾌적한 도시공간 건설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자랑스러운 군포 조성

하은호 군포시장은 지난해 가장 자랑하고 싶은 성과로 '노후도시특별법 국회통과'를 꼽았다. 일찍이 전국 최초로 '급조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던 하 시장의 말은 결국 '특별법 국회 통과'라는 족적을 남겼다.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디지털 혁신 선도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하 시장은 “올해는 군포를 스마트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하 시장에게 군포 시정에 대해 들어본다.

-쾌적한 도시공간 건설 '총력'

군포시는 갑진년 새해는 지난 1년여의 성과를 토대로 군포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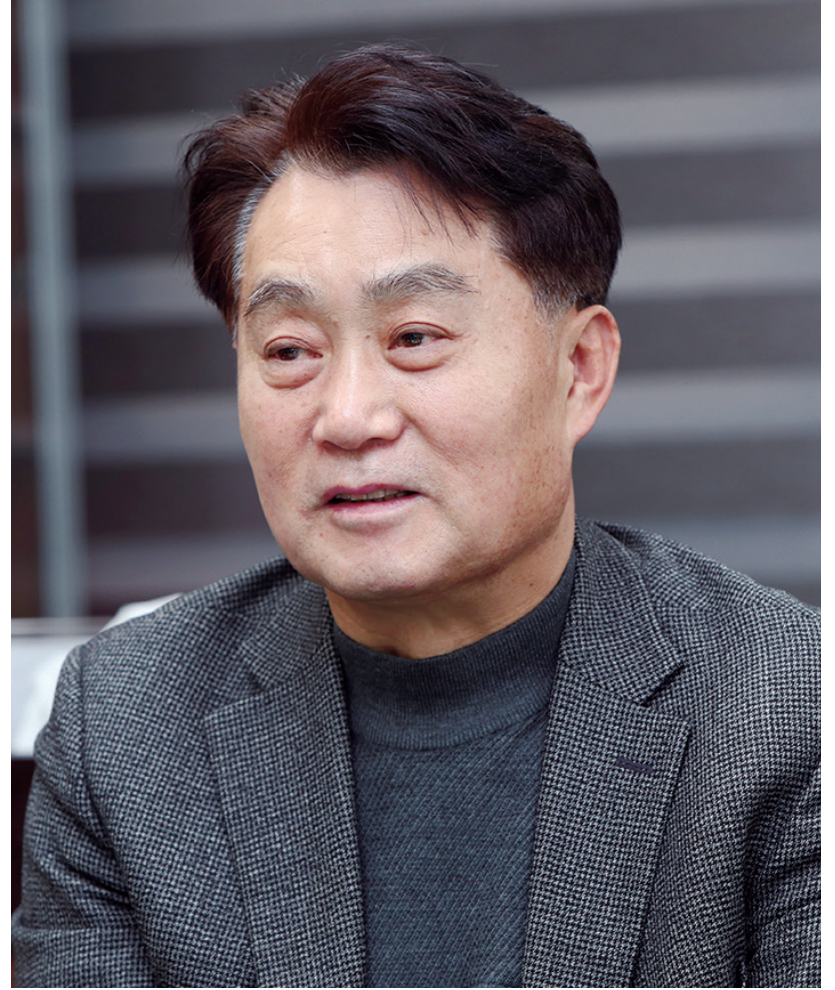
하 시장은 이에 “인간은 공간의 영향을 받는 존재”라며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포시는 산본신도시와 원도심 정비사업으로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급성역 일원의 전략적 개발과 공업지역 정비가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도47호선 지하화, 신규 철도 노선 확충 등 우선시 교통체계를 개선해 도시 균형발전과 고품격 미래도시로의 변화를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포 발전을 위한 숙원사업 해결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서울역~당정역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소위를 통과했다. 군포시민들은 지하화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용산지하철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정부의 추진선언이 늦어지면서 서울시장과 인천시장은 독자적으로라도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지하화특별법이 군포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가 입법을 준비하는 동안에 하



시장은 1기신도시뿐 아니라 기존도시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하 시장의 노력은 마침내 지난해 12월 노후도시재정비특별법이 통과라는 결실을 이뤄냈다.

이제 정부는 특별법 입법을 앞두고 5개 신도시는 정비기본계획을 입안하는 투트랙에 따라 선도시구를 정하는 수순이다.

-어르신 위한 복지도 빈틈없이

어르신에 대한 복지에 대해 하 시장은 “어르신들이 지금의 군포를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감사인사를 잊지 않았다.

군포시는 산본도서관에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공간 여유당을 개관했다. 올해부터 군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장수 축하금을 드린다. 이와 함께 버스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대상의 전통원예 배상보험에 어르신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했다.

-교육문화 도시 정책 강화

군포시는 모든 시민이 교육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교육문화 도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생애주기

별 디지털 능력 개발 프로그램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평생학습을 확대하고 누구나 제약 없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평생교육 도시 군포를 조성한다.

초등학교입학축하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 아동센터의 안정적 운영으로 아동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청소년 정책추진으로 미래세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누구나 자랑스러운 군포시를

하 시장은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로 “나는 우리 시민들이 어디를 가든 ‘나 군포 살아요’라고 자랑스러워 말하는 도시를 꿈꾼다”며 “주거공간이 쾌적해지고 나면 수리산과 반월호수라는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사통팔달의 교통편의성을 지닌 수도권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가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하 시장의 말처럼 ‘도시를 가지게 시민을 행복하게’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민선8기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도시 외관이 바뀌고 공간에 대한 재구성이 진행되고 있다. 정용포 기자

김용남 “국민 눈높이 안 맞는 국힘에 절망”

국민의힘 탈당 기자회견

이준석 신당 입당 '의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의 개혁신당(가칭)에 김용남 전 국회의원이 동참한다.

천하람·허은아·이기인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남 전 국회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탈당·신당 입당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의원은 탈당 선언문을 통해 국민의힘을 비민주적 사당(私黨)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민심을 받들어 민생 해결 방안과 정책을 고민하기보다는 오직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민심에는 눈과 귀를 닫아 버리는 합리성과 상식을 찾아볼 수 없는”이라며 “저는 당시 윤 후보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던 '공정과 상식'이 지켜질 것을 믿었다.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다”고 했다.

또 김 전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지난해 3월8일 전당대회 전후에 보여줬던 모습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탈당과 '개혁신당' 입당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라며 “대통령실이 거의 공개적으로 개입해서 당시 여론조사에 거의 등수 밖에 있던 분을 억지로 세우고, 또 그분이 그만두는 과정도 대단히 비민주적이었다”고 거듭 여당과 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계속해서 김 전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해어진다”고 생각하는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본인 가족

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표결에 따라서 폐기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김 전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의 당정관계와 관련한 질문에는 ‘김기현 당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바뀐 사람의 교체는 있었습니까만 당정관계에서 어떠한 변화도 느끼지 못하

다”고 비교했다.

아울러 그는 “3개월짜리 장관, 6개월짜리 차관들이 출마를 서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국힘이 정말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그리고 국민의 민의를 쫓는 공당이라면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 민고 출마를 하겠나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김 전 의원은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으로 제19대 수원명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에서는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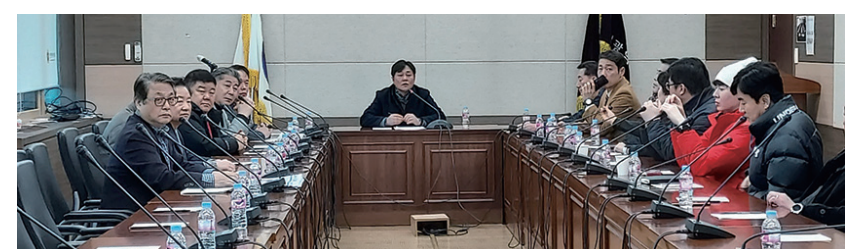
한편 개혁신당은 오는 2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고 신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개혁신당은 현재 5만명이 넘는 당원을 확보했고, 서울·경기·인천·대구·경북 등 5개 시도당 창당을 완료했다.

개혁신당이 닦을 올리면 4·10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로 나온 여러 정치 세력 가운데 유력한 한 곳이 거점을 구축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

개혁신당의 지도체제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홍정윤 기자



국민의힘 인천시의회들은 13일 3층 의원총회 회의실에서 20명이 참석해 허식 인천시장 불신임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사진=유동수 기자)

허식 인천시의회 불신임안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인천시의회 결정
보수 시민단체 집단 '반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의 5·18 사태 폄훼와 관련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당 출신인 의장 자진 사퇴권고를 넘어 불신임(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의견을 모으면서 보수시민단체들로부터 집단 반발을 사고 있다.

국민의힘 인천시의원 25명(3명 해외출장, 2명 불참)중 20명은 13일 오후 시의회 의원총회 회의실에 모여 허 의장의 5·18 사태 폄훼로 의원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명분을 앞세워 불신임(안) 중지를 모아가며 2시간 동안 의원 총회를 가졌다.

박용철 국힘 대표의원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오늘 의원들이 참석해

허식 의장에 대해서 5·18 사태와 관련 국민의 민심과 그 정서는 존중되어야 하는 만큼 의원들의 중지를 모았다”며 “오는 23일 본회를 통해 불신임(안)의 의견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짚막하게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이날 회의는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질문 등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용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봉락 부의장은 기자들로부터 “이번 사태가 중대사건이거나 불법적인 사항도 아닌 사항을 시의회 윤리위원회의 회부도 없이 국힘 의원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가”라는 질문에 “의원들의 의견인 불신임(안) 의견을 민주당 의원들과 협의 거쳐 본회의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동수 기자